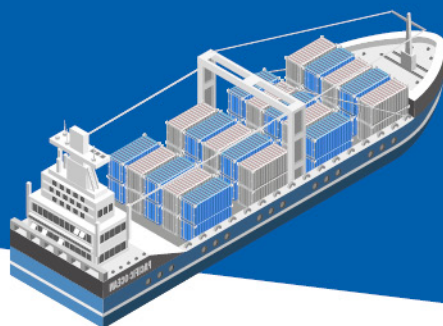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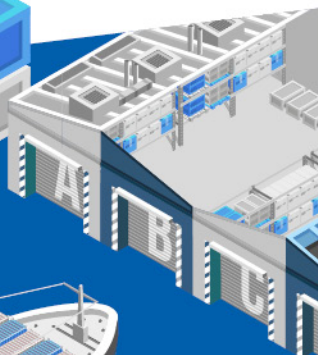


경북 청년무역 사관학교 제9기 수기집



GYEONGSANGBUK-DO × K I T A



OPEN A NEW
HORIZON

GYEONGSANGBUK-DO × K I T A



A large container ship is shown from a high-angle perspective, sailing on a deep blue ocean. The ship's deck is densely packed with multi-colored shipping containers in shades of red, blue, green, and white. The ship's white superstructure is visible towards the stern. A white wake is visible in the water behind the ship. In the background, a distant coastline with low mountains is visible under a vast blue sky with wispy clouds.

OPEN A NEW

Horizon

Contents

06 발간사

07 추천사

프로그램 안내

이토록 알찬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 8 교육일정
- 9 교육과정
- 10 수출상담회
- 12 청무사 Q&A
- 13 무역 현장 탐방지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1 사진으로 보는 2021 청무사

선명하게 새긴 기록

- 16 입교식
- 18 이론교육
- 19 세상을 바꾸는 시간
- 20 수출 시뮬레이션
- 21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 22 수료식
- 24 무역현장탐방

2 9기 프로그램 참여 수기

멈춤 없는 열정

- 28 김도희 (영남대학교)
- 30 김태우 (영남대학교)
- 32 고민우 (경북대학교)
- 34 구유정 (계명대학교)
- 36 오제현 (경북대학교)
- 38 추교범 (대구가톨릭대학교)

3 무역현장탐방 참여 수기

기대보다 더 큰 선물

- 42 김준영 (계명대학교)
- 44 김화정 (동아대학교)
- 46 박다은 (영남대학교)
- 48 엄소현 (영남대학교)
- 50 유영록 (대구가톨릭대학교)
- 52 이주형 (경북대학교)

- 54 **조별 사진 앨범**
꿈꾸는 청년들

- 60 **응원메시지**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함께

확고한 중심으로 함께 만드는 기회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수기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더욱 뜻깊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나라 간 무역도 위축되는 등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대외환경 속에서 경상북도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현장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 빠른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인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전반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주신다면 이 상황을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13년부터 복잡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총 622명의 무역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취업대상자 395명 중 347명(88%)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무역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청년 무역인재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경상북도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제회복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경북의 미래인재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되고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큰 꿈을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기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이 무역인이 되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상북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발 한발 내딛는 꾸준함으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상헌

대구경북 지역의 젊고 잠재력 높은 청년들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2013년 첫 걸음마를 댄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가 올해로 9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정을 속개함으로써 청무사의 전통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금년 청무사를 개최해도 되는지부터가 걱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길 개척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역협회 담당자들은 모든 상황과 변수에 매사 경계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의 몇 배는 더 발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9기 수료생 60명 전원이 한마음으로 까다로운 방역지침을 기꺼이 감내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사상 최단기간(299일)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코로나 이전 수출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액이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 10개국에 불과합니다. 국가별 무역순위는 영국을 제치고 8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이 같은 무역의 호조가 청년들의 취업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 방식의 교육으로는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건전한 위기감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토론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키우려 노력했으며, 스타트업 및 창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함께 풀어보고자 올해 처음 '대구경북 잡투게더 채용박람회'도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청과 무역협회가 함께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과 패기를 잃지 말고 곳곳하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무역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상북도에 감사드리며, 도와 협회의 일련의 노력들이 축적되어 수년 후 우리 청년들이 대구경북 경제의 주춧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알찬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지역 내 청년 인재들이

무역에 대한 지식부터 실무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실무에 강한 청년 전문 무역 인력을 육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우리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본 교육과정의 목적입니다.

01 교육일정

Curriculum Calendar

※ 사전 온라인 기본교육 실시

※ 동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MON 월	TUE 화	WED 수	THU 목	FRI 금
1주차		발대식 (11시~12시) 특강: 아이스 브레이킹	무역프로세스 및 법령 무역계약 및 인코텀즈(1)	무역계약 및 인코텀즈(2) 운송 및 해상보험 포함	현장견학 울산항만공사
2주차	FT활용 및 품목분류 통관 및 관세환급	품목 및 시장조사, 바이어 마케팅 기법	외환 및 리스크 관리수출입 대금결제	무역이론 시험 스타트업 데이	커리어업 데이 - 취업전략 강의 - 자소서 컨설팅 - 테이블 매너
3주차	실전 무역영어	수출시물레이션(1)	수출시물레이션(1)	수출시물레이션(1)	모의 수출상담회
4주차	수출시물레이션(2)	수출시물레이션(2)	수출시물레이션(2)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수료식 (10시~12시)

02 교육과정

Curriculum

사전 온라인 교육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해, 본 과정에 입문하기 전 기초 무역실무 이해를 돕습니다. 전공자들은 무역 이론을 복습할 수 있고, 비전공자들은 기초 무역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http://newtradecampus.kita.net>)

무역 이론 무역계약, Incoterms, 대금 결제 등 실무 중심형 이론 교육

비즈니스 영어 Business Letter 작성 교육

특강 교육생의 동기 부여를 돕는 전문가들의 강연



수출상담회란?

교육과정 중반에 실제 국내·외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수출 상담을 본떠 모의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조별로 '어떤 시장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된 각 조는 전시 부스에서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는 셀러 역할과 다른 국가 및 기업 부스에 직접 방문해서 해외시장을 조사하는 바이어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수출상담회에서 교육생들은 그간 배웠던 무역 이론과 실무 내용을 총망라하여 실제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상황을 연습하며,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조별로 선정한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평가
- 효과적인 제품 판매 및 계약 체결 전략 수립
- 해외바이어 상담 시 필요한 조건 학습
(최소수량, 가격 조건, 무역용어의 국제적 규칙 등)
- 상담일지 작성 및 향후 컨택 전략 수립

1 제품 소개**2** 바이어 상담**3** 상담일지 작성
바이어 특징, 연락처,
관심품목 등 기재**4** 사후 관리



수출상담회 들어다보기

“실제 전시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나요?”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물론 수출상담회의 경우 수출시물레이션 교육과 해외마케팅 경진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기에, 조별로 참가한 학생들은 반드시 최소 1개사(다른 조)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컨택을 하게 됩니다.

모의 수출상담회에서는 셀러와 바이어 간의 미팅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스케줄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외 전시회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장에서 하루에 1명의 바이어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바이어를 만나서 어떻게 미팅을 관리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의 수출상담회가 국내·외 전시회와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수출시물레이션 교육 시간 증가

교육생 니즈를
반영하여 신규 강좌 추가

48시간



64시간

- FTA활용 및 품목분류
- 통관 및 관세환급
- 품목/시장 조사
- 바이어 마케팅 및 DB관리 비법

04 청무사 Q&A

Q&A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5세~39세의 청년 중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타 지역 대학생이라도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상북도라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료생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교 3·4학년, 그리고 졸업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청무사의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나요?

청무사 교육과정은 비전공자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시작에 앞서 교육 대상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온라인 사전강의를 수강하며 무역기초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후 본 교육과정에서 무역 이론과 실제 무역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및 노하우를 체득하게 됩니다. 역대 수료생 현황을 참고하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은 6:4 혹은 5:5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본 교육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온다면 비전공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적인 청년 무역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무사가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은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청무사 수료는 숫자로 나타나는 스펙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무사 이후 달라진 본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무사 수료생들의 취업률과 주요 취업처는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청년무역사관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 무역 관련 회사로 취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수료생들은 무역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제일연마공업, 대성하이텍, 상신브레이크, NUC전자, 대구은행 등과 같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서도 청무사 수료생들이 활약 중입니다.

청무사 수료 시 제공되는 특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①우수 수료생 무역현장탐방, ②무역 관련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③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자소서 및 취업캠프 참가 지원)을 특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전의 경우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료증은 전원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무사의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청무사 교육과정은 이미 완성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충실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점이나 각종 자격증보다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개별 지원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펴 청무사 과정에 임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05

무역현장탐방 지원

Supporting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우수 수료생을 선발하여 무역현장탐방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해외전시회 참여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인천 및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며, 파견된 수료생들은 대구·경북 수출 기업의 부스에 1:1로 매칭 되어 바이어와의 상담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회에 참가한 각국의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서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수출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무역현장탐방은 유용한 특강, 실무자와의 만남, 기업 견학, 전시회 참가 등으로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수료생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06

사후 관리 프로그램

Program

**무역 관련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각 1회)**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선발된 시점부터 6개월간 응시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를 각 1회 지원합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수료생들은 한국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잡투게더 채용박람회 참가
- 대구경북 지역기업 채용정보 우선 안내
- 무역관련 공모전 멘토링 지원

GYEONGSANGBUK-DO
X
KITA



선명하게 새긴 기록

PHOTO STORY

사진으로 보는 2021 청무사

1



16 입학식

18 이론교육

19 세상을
바꾸는 시간

20 수출
시뮬레이션

22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23 수료식

24 무역현장탐방

OPEN A NEW HORIZON

사진으로 보는 2021 청무사

PHOTO STORY

선명하게 새긴 기록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01 입교식

▼ 하대성 경상북도 부지사(앞줄 가운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앞줄 좌측에서 두 번째)





02 이론교육



03 세상을 바꾸는 시간



사진으로 보는 2021 학무시



04 수출 시뮬레이션



05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사진으로 보는 2021 행사





▲ 하대성 경상북도 부지사(둘째 줄 가운데), 최우각 대구경북기업협의회장(둘째 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06 수료식



07 무역현장탐방





GYEONGSANGBUK-DO
x
KITA



멈춤 없는 열정

UNSTOPPABLE PASSION

9기 프로그램 참여 수기

2



28 **김도희** (영남대학교)
바다 앞에서
목격한 확신

30 **김태우** (영남대학교)
무궁한 발전을 향해

32 **고민우** (경북대학교)
사람과 함께
만드는 것들

34 **구유정** (계명대학교)
'비슷함'이라는 따스함

36 **오제현** (경북대학교)
온통 배움투성이

38 **추교범** (대구가톨릭대학교)
탁 트인 여름 청무사



OPEN A NEW HORIZON



바다 앞에서 목격한 확신

김도희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발표를 통해 평소 소심하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던 제가 어떻게 '인싸' 김도희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도전을 할 때도, 큰 사건이 생겼을 때도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건 자신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항공 승무원을 목표로 중국 언어문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이후, 반도체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몇 번 주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하며 처음으로 무역에 대해 접하게 되었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단시간에 무역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실무적인 부분이 이론 교육과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시간은 울산항만 견학이었습니다. 책의 지식만으로는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차이, 벌크 화물을 수출입 하는 데 이동 과정이 어떻게 되고 CFS, THC charge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울산항만 견학의 기회가 있었어요.

01 무역인프라 견학

02 조원 단체 사진



부두를 이동하며 실제로 벌크 화물이 벌크선에서 장비를 통해 화물차로 옮겨지고, 그 화물차가 창고까지 옮기는 것까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담당자분이 이렇게 들어온 화물들이 통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화물 선박 내 크루들은 부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여행가이드처럼 설명해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울산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짧은 취업 컨설팅도 있었죠. 마지막은 팀원들과 함께 바다에서 자유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모든 프로그램은 해상 무역 과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알찬 견학 코스였습니다. 이론 교육으로 고정된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무역에 대해 대금 결제 조건조차 몰랐던 '무린이'였는데요. 갑자기 무역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했고, 크게 목표하는 바가 없이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사치일 정도로 탄탄한 무역이론 수업과 실무 경험으로 역량을 갖춰줄 뿐 아니라, 훌륭한 멘토님들과 함께하며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었어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저는 무역 상담회를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린이'에서 무역 전문가로 거듭나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만으로 충분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을 갖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영어, 중국어 이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익혀 해외에서 능력 있는 무역 사절단 역할을 해내고 있을 거예요.
- 2 교육기간 동안 쉽게 쓰러지지 않게 잡아줬던 한마디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 도 잘할 거야'라는 말이었습니다.
- 3 제 주변에도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조금씩 할 필요 없이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 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꿈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데는 이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향해

김태우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어느새 가까워진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만난 동기들과 첫인상을 공유하였는데 저의 종이에선 밝고 친화력이 좋아 보인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어색한 첫 만남을 기분 좋은 출발로 바꾸고 더욱 가까워진 게 기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중국 교환학생을 다녀오며 무역에 관심이 생겼고, 교내 취업 상담을 통해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무역에 관심만 있다면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고 도전할 용기를 얻었죠.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니! 어떤 활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저에게 무역인으로서 첫 발걸음이 되었어요.

처음 두꺼운 무역 이론 책을 받으며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다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전 온라인 무역 수업에서 들었던 용어들은 낯설었고 어렵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현장 이론 수업에서 만난 전문가분들이 핵심을 콕콕 집어 쉽게 알려주셨어요. 게다가 실제로 겪은 예시를 소개해 주시며,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유도하시니 스스로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강의 속 유용한 꿀팁들을 속삭여가는 느낌이었어요.

01 수출상담회

02 수출 시뮬레이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스타트업 데이'입니다. 창업은 막연하게 '누구나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적이면서도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중 한 명도 대표로 참여해 더 친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강의 형식이 아닌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창업에 대한 질문을 직접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초기비용 같은 사소할 수 있는 질문에도 꾸밈없이 다 답변해 주시고, 창업비용을 지원받는 방법 등 구체적인 궁금증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 대표님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직접 생생히 보는 듯했어요. 한 대표님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하셨죠. 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앞으로 나아가간다면 분명 저도 좋은 무역인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알게 되어 저만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수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제무역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쌓고자 해외 인턴에 도전 중입니다. 皇天不负有心人.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운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운을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중국에 기반을 둔 종합상사에서 E-commerce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제공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 2 팀원들이 챙겨준 사탕이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속에 '잘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 3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제가 행복을 지키는 소소한 방법이에요.
- 4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Grit>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만드는 것들

고민우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어학공부 한곳 더하기

영어의 경우 영화를 즐겨보는 저의 취미와 접목하여 학습하고 있어요. 배우의 대사를 따라 말하고, 생소한 표현은 따로 기록하여 암기하죠. 러시아어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모놀로그를 전개하고, 반복을 통해 자기부호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이전에 다른 누군가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합심하고 함께 노력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홀로 극복하고 강해져야만 한다는 아집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도망쳐 고립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2조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대구의 전통주 '하향주'를 아이템으로 선정했는데요. 하향주를 선택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향주를 되살리자는 마음으로 선정한 상품이지만, 판매하기에는 부족한 논리에 좌절했고 폐업 위기라는 무거운 현실에 주저했습니다. 더욱이 하향주를 빚고 계신 명인 박환희 선생님께 여러모로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러한 이유로 팀원들에게 하향주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거둬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오히려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밤낮으로 하향주를 왜 판매해야 하는지 차곡차곡 근거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환희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우리를 양조장으로 초대하여 10명이 넘는 하향주를 샘플로 주시고 직접 먼 거리를 운전하여 다시 협회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하셨죠.

01 수료식

02 하향주가 방문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설었어요. 왜 팀원들이 나를 믿어 주고 늦은 밤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까? 왜 박환희 선생님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학생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말하고 기세의 고령에도 '때가 되었다'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타인의 신뢰와 열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믿음과 열정에 보답하고 그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답을 찾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버텼고, 부족한 부분은 팀원들과 멘토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나를 지탱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벅찬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일의 즐거움을,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무역실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자기 극복의 과정이자 고립에서 사람으로 향하는 도약의 과정이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열정과 희망을 찾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우리 팀원들과 멘토님 그리고 모든 인원이 보여주었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제게 남았습니다.

우리 2조가 선정한 아이템 '하향주'는 얼마 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4천 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어떤 곳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무역인이 되어 미래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식량 트레이딩 사업에 일조하고 있을 거예요.
- 2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잠들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고 조금의 실마리라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수시로 되뇌던 말입니다.
- 3 가끔 다가오는 행복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조금씩 개선하고 버티는 것. 제 나만의 방법이에요.
- 4 조너선 화이트의 《바른 마음》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알고리즘에 의해 확증 편향되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입니다.





‘비슷함’이라는 따스함

구유정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자기소개서 작성 한곳 더하기

우선 어떤 대외활동인지 사전 조사를 통해 지원동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경험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가 있다면 수치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전공이 적성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무역 관련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휴학하게 되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고, 그 첫걸음이 바로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였어요. 무역이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하고 싶은지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통해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해외마케팅 경진대회였습니다. 약 2주 동안 수출제품과 기업을 직접 정해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국을 선정,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무역 서류까지 작성해보는 무역실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출제품을 정하는 것부터 막연했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저는 혼자 무역 서식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서류가 많고 어렵다 보니 두 명이 함께 발표하는 걸 추천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서류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패기 있게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01 무역인프라 견학

02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직접 상업 송장, 신용장 등을 작성해보는 것은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국제무역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무역에 관심이 많다, 또는 무역학과라면 무역 서식을 맡는 걸 추천합니다!

평소 무역에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웠는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활동을 통해 무역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경험을 토대로 '수출 핫템 공모전'에도 참가했고, 앞으로도 같이 공모전을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공모전도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각자 다른 경험을 얘기하며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론교육부터 수출 시뮬레이션, 해외마케팅 경진대회까지 활동에 몰두하느라 잠도 아끼고, 밥도 거를 때도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했어요. 가장 열심히 시간을 보냈던 시기라 지금도 어떤 일에 도전할 때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때처럼만 하자고 마음을 먹곤 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청무사. 여러분도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디딤돌 삼아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대기업 무역팀의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 2 멘토님께서 항상 저한테 "유정이는 정말 잘해. 잘하고 있어!"라고 무한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 3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생각보다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해보면 뿌듯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4 《신경 쓰지 않는 연습》. 걱정이나 불안에 얽매어 있지 않고, 더 대범하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온통 배움투성이

오제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최고의 특강

마지막날, PPT를 급하게 만드는 저희에게 '우리 너희 점수 잘 받게 해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온 거야라며 잊고 있었던 '배움'이라는 한마디를 다시 알려준 교수님들. 그 한마디가 어느 특강보다 값졌습니다.



2020년 '선하증권'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던 저는 미국의 한 물류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전지식의 부재로 인한 성취의 아쉬움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배움'이죠.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수업,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배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파악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연 수출 시뮬레이션입니다. 아 이템 선정부터 시장 분석, 관세 및 비용 분석, 가격 산출 및 실무적인 진행, 수출상담회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어요. 쉽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고, 실제 과정을 체험해보는 것이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01 수료식

02 조원 단체 사진



그래서 막혔던 것들을 적어두고 실무자인 교수님과 상의하며 적절한 답을 찾아내고, 실제 판매자와 선사, 물류회사, 현지 유통회사 등과 직접 연락해보며 무역이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배우려 노력했죠.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습득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단어를 넣은 의도에 대해 주목하며 글을 마치고 싶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성장했으면 하는 진심,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진심, 꺼지지 않는 강의실 불빛과 질문들, 공식 활동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탐구 정신 등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60여 명의 좋은 사람들과 4주 동안 함께하며 서로 배우고 영감을 주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덕분에 코로나로 멈춰버린 듯했던 세상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 취업 걱정이 그렇듯,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다 멈춰버리고 싶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히 단언컨대,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좋은 첫 단추가 될 거예요. 지금 고민 중인 당신, 문을 두드리십시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여전히 무언가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회사든 학교든, 그곳이 어디든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 2 담당 교수님의 부재로 팀장님께서 교수님 역할을 해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달라고 해주셨던 대화가 가장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 3 Just do it,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참여한 것처럼 일단 뭐든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해요.
- 4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재》 다른 어떤 책보다 두껍던 교재. 오랜만의 집중과 공부,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인연의 집합체이기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탁트인 여름 청무사

추교범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청무사의 하루 루틴

강사님들의 오전 수업을 듣고 조원들과 점심 메뉴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후엔 '세상을 바꾸는 시간' 발표 프로그램과 무역이론 강의가 있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조원들과 간단한 회의까지 마치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오뉴월의 푸르른 여름. 그러나 제 일상은 마냥 밝지만은 못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내 활동과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일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저는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표현이지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취업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했어요. 그러던 중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여러 강사분이 오셔서 매일매일 많은 범위를 속도감 있게 강의해 주셨어요. 좋았던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 외에도, 현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실제 에피소드와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론교육, 현업 전문가들의 밀착 멘토링, 다양한 조별 활동은 모두 대망의 '수출입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템 선정과 자료조사가 정말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01 수료식

02 수출상담회



제한된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조바심과, 좀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디테일을 놓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 같이 노력해서 결과물을 완성하고 발표를 마쳤지만, 발표 당일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죠. 부족한 조장이었음에도 팀원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실감 나고 재미있었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청무사의 전체 과정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선했던 경험이었죠. 지금까지의 방학 기간 중 가장 긴장감 있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혹자는 대학 생활을 모라토리움(유예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물밀듯이 자유와 책임이 밀려오게 되죠. 그렇기에 대학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로 미래의 내가 규정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어쩌면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가 그 해답이 되어줄 지도 모릅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30대 중반의 저는 아마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겠죠.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 들은 현업자의 창업 이야기가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 2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실없이 던진 농담을 잘 받아준 조원들. 화목한 분위기를 끝까지 이끌어준 조원들에게 감사합니다.
- 3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많이 탐독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치던 기타도 다시 연습해봤죠. 남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취미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4 비카스 사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유명한 석학들의 강연 내용을 책 한 권에 정리해놓아서 저처럼 오랜 독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GYEONGSANGBUK-DO
×
KITA



기대보다 더 큰 선물

THE BEST GIFT

무역현장탐방 참여 수기

3



42 **김준영** (계명대학교)
감귤 향 같은
신선함으로

50 **유영록** (대구가톨릭대학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44 **김화정** (동아대학교)
더 큰 불씨를
가슴에 품고

46 **박다은** (영남대학교)
처음이라
더 밝게 빛난 가능성

48 **엄소현** (영남대학교)
술한 질문 끝에
마주한 느낌표

52 **이주형** (경북대학교)
고마운 만남과 성장





감귤 향 같은 신선함으로

김준영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아직 못다 한 말

저희의 영원한 멘토, 조훈 강사님! 청무사의 마지막 관문인 해외마케팅 경진대회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큰 힘이 되어 주셨죠. 강사님의 충혈된 눈을 보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몸소 보여주신 순수한 열정을 통해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무역이론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무역현장탐방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무역현장탐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김인근 팀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분들이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역현장탐방은 제주도에서 시작해 송도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총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색적이고 다양한 지역 기업을 탐방하여 무역업과 창업에 대한 지식을 넓힐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견학한 기업 중에서도 제주사랑농수산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와 팀원의 주도로 직접 탐방을 의뢰하고 섭외했던 기업이라 당일 출발하는 길부터 탐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주사랑농수산의 현직자 분에게 제품 제작부터 마케팅, 수출과정 단계까지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들으며 무역이론 시간에 배웠던 무역프로세스와 용어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01 수료식

02 조원 단체 사진



인상 깊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주사랑농수산물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 중 감귤 향은 외국 화장품이나 향수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아주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고, 스스로 '어떤 아이템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볼 것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해준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역현장탐방을 마친 후 저는 단순히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의 틀을 벗어나 실무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방문하여 현직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이론 수업으로 느끼기 어려운 현장의 생생한 감각과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사회에 운영 요원으로 참여해 담당업체와 수출상담회를 함께 진행하며 실무진이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통해 제 꿈은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명사형에서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동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운영진, 강사진분들의 지도 아래 실무인재가 될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며 제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우직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도전정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니 두려워말고 입교 하셔서 훌륭한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무역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보시길 바랍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식품과 화장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알고 있을 겁니다!
- 2 우리 8조 조원들 혜진이, 예담이, 규보가 항상 웃으며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8조, 내 소중한 인연들 너무 고마워!
- 3 한산한 아침이나 새벽에 산책이나 등산을 합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켜며 하늘을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죠.
- 4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사회학,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놓은 책입니다. 지식을 쌓기에 아주 좋은 책이죠.





더 큰 불씨를 가슴에 품고

김화정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모의 수출상담회 베스트 컷

11조의 아이템, 스페인에 판매하기로 한 욕심 슬리퍼가 기억에 남아요. 스페인 체류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템 선정부터 현지인 반응 조사와 시장 내 높은 선점 가능성까지. 탄탄한 자료조사가 뒷받침된 진정성 있는 셀러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과정의 꽃, 해외마케팅 경진대회에서 저희 2조가 우수상을 받았고, 무역현장탐방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탐방 직전에 입사를 확정 지은 상태였기에 입사 전 다른 기업을 견학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무역현장탐방에서의 일정은 새로운 환기의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우도의 경관을 직접 느꼈던 것입니다. 평소 제주도에 가더라도 우도는 기후 때문에 가기 힘들고 맑은 날이 드물다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청명한 날이었어요. 신선한 우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니 그간의 피로와 감정들이 맑아지는 것 같아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 자동차산업 및 국제 수송기계 부품 전시회' 운영 요원 활동입니다.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진의 부스 운영 요원으로 참여하여, 자동차산업 내에서도 특수 분야인 ㈜진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01 무역탐방(제주도)

02 수료식 기념사진



특히 전시회 기간 함께한 선임연구원님께 중소기업 재직자이자 실무자로서 생생한 일화를 들 수 있어서 산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에 가려진 중소기업만의 강점과 경력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 수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동기들 모두에게 정말 귀한 조언이었습니다. 이번 무역현장탐방을 통해 막연하게 느껴지던 첫 직장 and 산업군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실무자와의 1:1 만남과 제주도 여행은 코로나, 졸업, 취업 준비 등으로 침체되었던 일상을 재충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수료식 이후 못 만날 줄 알았던 동기들, 운영진분들과 재회한 것입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보낸 지난 7월은, 2021년 중 가장 치열했지만 그만큼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끈기가 시간이 지나며 얼어질 때쯤 무역현장탐방을 통해 그때의 마음가짐과 패기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9기로서 활동했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 열정이라는 불을 피우게 하는 ‘불쏘시개’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며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줄, 제게 다시 열정의 불을 붙여 줄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해외영업부 과장으로서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의 비즈니스 석에 타 있을 것 같아요.
- 2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직전 긴장한 저에게, 발표 시간을 넘기더라도 다음 순서인 조원들이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 따스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있었어요.
- 3 ZOOM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 친구들과 랜선 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오히려 더 신나더라고요.
- 4 《모든 순간의 철학》 어렵다고 생각되는 철학을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들과 연결해, 철학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이라 더 밝게 빛난 가능성

박다은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내 편을 만드는 방법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견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이성적으로 주고받는다면 결과물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믿어요.



‘청무사 끝나고 우리 아이템 들고 전시회 가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우리 11조는 영광스러운 최우수상을 받고 무역현장 탐방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인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 같았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사전에 계획했던 시카고 전시회는 연기되었지만, 송도에서 열리는 ‘한국 자동차 및 수송기계 산업전’에 참가할 수 있어 들뜬 마음이었어요.

전시회 첫날, 탐방 온 학생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생들은 다들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회 운영 요원이라 적힌 이름표를 받자마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제가 배정된 ‘나노 시스템즈’ 기업 부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회 현장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주변 분위기를 살피다가 오전이 훌쩍 지나가버릴 정도로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01 수료식 기념사진

02 기업탐방



이후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부스의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바이어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바이어들이 엄청 많이 방문해 당황하기도 했지만,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셀러의 매너와 행동들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이어분들께서 '실제 직원처럼 똑 부러지게 설명 잘한다'며 칭찬도 해주셨죠. 혼란스럽던 저에게, 그 한마디 칭찬은 지금까지도 좋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칭찬에 힘입어 남은 전시회 일정에서는 더욱 자신감 있게 나서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한편 동종업계 실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직업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려진 부분까지 세세히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 제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실제 전시회에 다녀오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건, 실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시회에 오는 바이어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제가 준비한 예상 답안의 수준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과정이 무역에 대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양질의 삶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아침 조깅 후 직접 만든 토스트를 입에 물고 허겁지겁 차를 몰고 출근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 2 결과물 발표날, 배정된 시간을 넘겨버려 기죽어 있는 저에게 '다은이 설명 정말 잘하더라'라며 격려해주신 도광호 멘토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 3 코로나19의 제약들을 방패 삼아 안일해지지 않는 것! 집에서 DIY명화를 그리며 행복을 얻기도 했지만, 요즘은 무엇보다 제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 4 《트렌드코리아2022》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 시점에서 급변한 사회를 대비하여 책으로 예측하고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한 질문 끝에 마주한 느낌표

엄소현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오직 청무사에서만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는 실무 용어와 생생한 경험을 곁들여 무역 지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무역 지식을 쌓아두는 것 이라면, 청무사는 현장감을 통해 그 간 배운 지식들에 활기를 더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무엇을 잘할까?’

‘정말 무역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졸업을 앞두고,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뛰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을 거치며 질문에 대한 정답도 얻고, 마케팅 경진대회 우수팀으로 선발되어 무역탐방의 기회도 얻게 되었죠. 최선을 다한 만큼 우수팀 선정의 감격도 컸어요. 조원들과 회식을 마무리하고 지하철에서 받은 팀장님의 전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환승역에서 다른 조원들에게 우수팀 소식을 돌리며 평평 울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당초 해외무역탐방으로 계획된 일정은 변화무쌍한 코로나 대응 상황에 맞춰 국내무역탐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서는 기업탐방을 주로 하며 다양한 시각을 키웠고, 인천에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KOAA-GTT 전시회(한국 자동차 및 수송기계 산업전) 경북 참여기업을 통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일정의 첫날, 산업전에서 함께한 기업의 영업과장님께서 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업무에서 부딪히며 쌓아 오신 귀한 경험들이었는데, 하나하나 놓치기

01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우수상

02 조원 단체 사진



싫은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또한 모의 수출상담회에서 사용했던 CAPA, MOQ 등 실무 용어를 섞어 질문을 드려도 꼼꼼히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배운 단어들이 실제로 쓰이는 걸 보니 새삼 눈이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맴돌던 지식들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며 순간순간이 놀라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기업정보를 공부해서 간 덕분에 실제 바이어에게 제품 설명도 해드렸는데, 정말 신입사원이 된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업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오롯이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던 것 같아요.

일정 중 제일 감사했던 것은 무역협회에서 어렵게 마련해주신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 탐방 기회였습니다. 인천 마지막날에 방문해서 기업 소개, 채용 정보, 취업 팁을 들었고 Q&A 시간도 가졌어요. 이어서 각 층을 다니며 탐방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님께서 나오셔서 채용 정보는 물론 포스코 취업 팁을 아끼지 않고 전수해주셔서 메모도 열심히 했죠. 성심성의껏 답해주셔서 하나의 공감대로 이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현직자와의 만남에서는 추후 무역 관련 직무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향도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역현장탐방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흘러갔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음표 투성이었던 미래의 답을 찾아 느낌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던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정말 감사합니다.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유럽 회사에서 한국 바이어와 연락하고 있지 않을까요? 해외 취업을 목표로, 10년 뒤엔 외국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요.
- 2 '조장님! 진짜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원이 해준 말이에요. 때론 일상을 스쳐가는 말이 지치지 않는 힘을 줬요.
- 3 하루 정도는 본능에 자신을 내던지기. 취업 시기라도 하루쯤은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4 《달려구트 꿈 백화점》 너무 재밌어서 3시간 만에 읽어버린 책! 꿈을 사고판다는 점이 신선했고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번쯤 이용해보고 싶어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유영록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듣는 기쁨과 이끄는 기쁨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 조장으로서 이전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집단의 장이라는 역할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더 나은 모습과 결과가 보여 스스로 만족하고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제9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 약 한 달간 조원들과 함께 해외마케팅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최우수상을 받아 무역현장탐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역현장탐방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고, 제주도와 인천 두 곳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이어졌어요. 무역현장탐방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고 매우 값진 경험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고르라고 한다면 '제18회 한국 자동차 및 수송기계 산업전시회'를 고를 것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 14명의 교육생들이 함께 참가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어요. 단순히 전시회 탐방에서 그치지 않고, 전시회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에 14명의 교육생이 한 명씩 배정되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01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02 무역탐방(제주도)



실제로 기업이 전시회에 나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전시회에 필요한 물품들, 왜 전시회라는 행사가 필요한지 등 평소 학교 강의 시간에서 얻지 못했던 실무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어요.

또한 매칭 받았던 기업의 현직자 분들 중 무역·물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의 직무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통해, 평소 익혀두고만 있던 무역 지식을 실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깨달은 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무역현장탐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나아가고 싶었던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역현장탐방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지원해주셔서 부담이 없었던 점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무역현장탐방의 기회까지 얻어 귀한 경험을 최대한 많은 교육생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11조 조원들이랑 성공해서 만나 10년 전 함께한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회상할 것 같아요.
- 2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라고 들은 해외마케팅 경진대회의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 3 평소 축구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래와 함께 산책을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있어요.
- 4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놓치 않았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어요.





고마운 만남과 성장

이주형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언제든 꺼내 쓰는 청무사 스토리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 배운 해외 시장조사 및 분석 이론, 마케팅 전략, 계약서 작성법, 비즈니스 영어 등은 향후 어떠한 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활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처음 7조를 만난 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 뭔가 특별해! 그리고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활동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무역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였어요. FOB, CIF, DDP 등 처음 들어보는 무역 용어가 많았지만,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점점 무역 용어와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팀원들과 함께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당일까지도 조훈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팀원들 모두 만족스럽게 발표를 마치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 우수 팀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죠. 7조 팀원들과 조훈 교수님께 감사함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송도 무역탐방 기회를 얻고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01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우수상

02 전시회 참가



탐방은 4차 산업 및 스타트업 기업탐방, 국제 자동차산업 박람회 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현직자 인터뷰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9.81 파크, 우도 등 장소를 방문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액티비티한 활동을 즐기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찬 탐방이 기획되기까지 우수 수료생 팀장님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제주도 일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무역탐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통해 취업을 앞둔 우수 수료생에게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후 사옥 투어를 진행하며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체험하고 기업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직접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은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면접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죠.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무역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 무역현장탐방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과 전시회의 현장을 돌아본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9기, 한 달간의 생활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만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조 엄소현, 김예린, 박지혁 조원들. “고맙고 수고 너무 많았어”

Q&A

- Q1 10년 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 Q2 교육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 or 대화?
- Q3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 Q4 2021 올해 최고의 책과 그 이유?

- 1 호주 시드니에서 외국인 바이어와 상담을 끝내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 2 ‘오히려 좋아!’ 세바시 발표 때 8조 허규보 수료생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유행어인데요. 7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주 썼던 기억이 나요.
- 3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행복을 지키는 것.
- 4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9기 수기집》 2021년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청년들

YOUNG DREAMERS

조별 사진 앨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9기 수료생들은 맑은 여름을 건너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진 역경에도, 함께 온도를 더한 열정이 선명한 성과들을 보여주었어요. 2021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채웠던 청무사 9기의 빛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잊고 있던 조각조각을 모아 다시 열정을 피워낼 시간입니다.

1조

D
R
E
A
M

김태완
박경아
서정현
김재원

헤이~ 뭣찌다 뭣찌다 올 1조



2조

D
R
E
A
M

고민우
장진석
이태호
김화정

술과 함께 모두 즐겁고 화평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 전통술 함 마쉬바라! MASHIBARA!



조별 사진 앨범

3조

D
R
E
A
M

이하정
배영근
정용욱
손혜원

우리 함께 간다면
The World is Ours



4조

D
R
E
A
M

백채린
구유정
김현진
이성빈

4랑스러운 4이좋은 4조



5조

D
R
E
A
M

김도희
장윤정
오윤택
이진호

5조 가는 길 다 꽃길 깔아줘! 진행시켜!



6조

D
R
E
A
M

조철민
김다인
허수경
장민제

우리는 빛날거야저알록달록 빛깔처럼



조민지 촬영

7조

D
R
E
A
M

박지혁
이주형
김예린
엄소현

7조가 7조했다!



8조

D
R
E
A
M

이예담
안혜진
허규보
김준영

8조는 언제나 오히려 좋아~ 또히려 좋아~



9조

D
R
E
A
M

김비호
권영은
전우상
김희은

9조야, 이 나라 무역을 구조해줘~!



10조

D
R
E
A
M

김태균
박지훈
신수민
문정인

그 어떤 일도 10조에겐 쉽죠!



조원 사진 촬영

11조

D
R
E
A
M

유영록
박다은
김효림
김동영

애들아이거 다 언제 하나? 벌써 다했네?



12조

D
R
E
A
M

황효정
추교범
김강우
허인슬

무역에 약간 미친자들



13조

D
R
E
A
M

김태우
장원영
배서윤
황재욱

We're on the Next Level



14조

D
R
E
A
M

김수진
김호진
박민정
오제현

저희 조 이름은 14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곁들인...



조별 사진 촬영

15조

D
R
E
A
M

김정원
김도욱
이유진
박소연

산으로만 가지말자 그것만이 살 길



응원메시지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함께

수료생들의 열정을 뒷받침해주었던
강사진과 담당자들이 이제 막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될
수료생들에게 따뜻한 응원메시지를 전합니다.



김인근 팀장

열정, 열정, 열정! 대구·경북 최고의 청년들

‘열정이 넘치는 대구·경북 청년들이 여름에 청춘을 불사르며 무역을 공부하고 진화하는 곳’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대한 저의 엘리베이터 스피치입니다. 연초 교육생 면접부터 무역현장탐방을 마치는 연말까지 함께한 1년은, 젊은 에너지를 전달 받고 창의적인 영감을 함께 나누는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청무사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열정·지혜·태도의 3박자를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대구·경북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점이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준 교육생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깊게 고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경상북도 관계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환 주임

진흙탕에서 영롱히 피어나는 연꽃처럼

여름의 더위와 팬데믹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던 시기임에도 면접장으로 들어선 여러분의 강렬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적 제약과 여러 변수 속에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여러분의 단합력이 만들어 낸 성과물은 역대 기수 중 가히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시회를 방불케 한 모의 수출상담회와 높은 수준의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 등 악조건 속에서도 빼어난 결과를 만들어 낸 여러분의 열정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영롱한 색을 뽐내는 연꽃처럼, 앞으로도 상황에 굴복하기보다 자신만의 색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강사진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에 진심이었던 9기 교육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한 멘토

도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미래가 밝습니다.

제9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청무사만의 특별한 열정과 몰입은 수료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당사를 회고하게 합니다. 무역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불문하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과 서로 배려하며 독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사업 아이템과 바이어의 발굴은 현역인 제게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사회에서 훌륭히 통용될 인재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좌절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자세로 도전해 나간다면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든 과정을 열심히 노력해 준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도광호 멘토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아설 순 없습니다.

제9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기억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청무사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뭇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 전문가의 길에 입문하기 위해 청무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육과정을 이끌어 주셨던 운영진들과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열정과 의지로 열심히 했던 모두가 이번 청무사의 우승자입니다. 팬데믹도 무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막아설 순 없습니다.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안현기 멘토

성공 가능성에 대한 도전

여러분과의 만남은 행복한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20대를 뒤돌아보았을 때 저의 20대는 성공이라는 희망, 열정이라는 가능성을 포함한 반면,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함께 내포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큰 돌을 자르는 석공을 자 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큰 돌 하나를 자르기 위해 101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100번의 망치질이 있어야 마지막 하나의 망치질로 큰 돌은 갈라집니다. 100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도전일 뿐이죠.” 청무사라는 도전은 100번의 망치질 중에 하나 일 수 있습니다. 노력이 외면당하거나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내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멘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달립니다!

올해 청무사 과정은 코로나로 인해 예년 대비 인원수가 적은 환경에서 시작했었죠. 멘토로서 짧은 기간에 아이템 선정부터 무역 서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으로 멘토의 걱정을 불식시키며 훌륭하게 완주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역실무가 무엇인지 접해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은 이후 변화무쌍한 사회생활을 맞이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청무사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끈기에 더해 겸손함과 겸양의 자세로 맞이한다면, 훌륭한 무역인이자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무사가 여러분의 20대에 있어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의 무한한 건승을 조주현 멘토가 기원합니다.



조훈 멘토

함께했던 최고의 순간

여러분! 청무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무사에서 배웠던 무역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추억은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여건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쉬지 않고 달리는 여러분들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복귀해서도 Zoom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어지는 질문 퍼레이드와 화면 안에서 즐기고 있는 저를 좀더 재워주려고 했던 여러분의 배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내고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OPEN A NEW HORIZON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제9기 수기집

발행일 2021년 12월 29일
발행인 이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053-753-7531~3
dg.kita.net
제작 뉴룩스 **newlooks*** 053 755 4060
www.newlooks.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GYEONGSANGBUK-DO × K I T A



OPEN A NEW

Horizon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제9기 수기집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5층

T 053-753-7531~3

F 053-753-7530

dg.kita.net